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4. 21.(화) 15시

저고위,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문가 목소리를 듣습니다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신임 상임위원 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(4.21.(화))
- 전문가 및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예정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4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, 신임 박진경 상임위원 주제로 「인구감소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」를 개최했다.
 - 이번 간담회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, 앞으로 다가올 인구 규모의 절대적 감소 및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간담회는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, 국방·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인프라 확보 등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논의하였다.
 - 먼저,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실장은 “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인력 확보 방안”을 발제하였다. 미래 국방환경 및 상비 병력·예비군자원 가용규모를 전망하고, 첨단기술 도입·간부구조 변화·민간 아웃소싱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.
 -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양희준 박사는 “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학교체계 구축 방안”을 발표하였다. 인구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화를 전국·지역으로 나누어 전망하고, 규제 개선 등 교육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.

-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는 미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인구 타임테이블에 기반하여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.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는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험요인이 아닌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.
-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「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」에 반영하여,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상임위원은 “인구감소가 현실이 된 시대에, 제한된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방과 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
 - “전문가 의견을 귀담아 들어, 변화하는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구조전환 과제를 실행력있게 추진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인구전략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태정 (02-2100-1211)
		담당자	사 무 관	위윤화 (02-2100-1212)

□ 회의 개요

- (목적)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국방·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 기반의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의견 수렴
- (일시) 2026. 4. 21. (화) 15:00 ~ 16:30
- (장소) 정부서울청사 8층 저고위 회의실
- (참석대상) 저고위, 국방·교육 등 인구감소 관련 전문가
 - (저고위) 상임위원(주재), 인구전략국장, 저출산정책국장 등
 - (발제자)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실장, 한국교육개발원 양희준 박사
 - (전문가)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

□ 세부 일정(안)

※사회: 인구전략총괄과장

시 간	내 용	비고
15:00 ~ 15:05(05')	■ 인사 및 참석자 소개	
15:05 ~ 15:20(15')	■ 발제1 -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인력 확보 방안	한국국방연구원 (정철우 실장)
15:20 ~ 15:35(15')	■ 발제2 -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학교체계 구축방안	한국교육개발원 (양희준 박사)
15:35 ~ 16:25(50')	■ 종합토론	참석자 전원
16:25 ~ 16:30(05')	■ 마무리 말씀	